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3:21)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현교회 서촌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9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고난주간 전 교인 연합 특별새벽기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일부터 4월 2일까지 본당에서

모든 성도들의 동참 기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3).

고난주간 전 교인 연합 특별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성관 위임목사의 설교로 진행될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그동안 다소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추스리고, 전 교인이 기도 안에서 연합되는 온축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것이다.

교회는 중현의 온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가급적 교회 본당에서 실시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기도로 연합되는 온축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각 구역에서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교육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온축을 기리고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교육 식구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가 먼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육관 1층의 사랑부실(여성)과 2층의 유아부실(남성)을 개방하여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도회 직후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빵과 우유를 아침식사로 제공할 예정이다(만나홀).

중현의 성도들은 이번 고난주간 전 교인 연합 특별새벽기도회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종목사후보생 수련회

지난 23, 24일 국제회의실에서
10개 교단 35명 참석



제15회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
1999. 3. 23-24 목회 / 원로목사: 원로/주요인물: 원로 (24일) 20명

지난 23일(화)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군종목사후보생 수련회가 10개 교단 35명의 군종목사후보생과 여러 강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쳐졌다.

개회예배를 통해서 김성관 위임목사는 사람의 논리와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신령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군목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

고, 이어서 현직 군목 9명과 이필성 장로 등이 연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하였다. 군전도의 지도를 맡은 전형준 목사는 군목들이 스스로를 군 파송 선교사라는 의식 속에서 군목 임관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면서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중현교회에서 주최하는 이수련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기독교오페라단 창단 공연

일시: 4월 13일(화), 15일(목), 17일(토)

시간: 저녁 7시 장소: 갈릴리움

곡목: 칸타타 '부활'

*오페라단 전체 대원의 파관수가 본 교회 찬양대원입니다.

장로 · 안수집사 선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오늘 4부예배 후 본당 공동의회에서
모든 세례교인 동참해야, 후보자 명단은 본당 안내석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전 4:1).

오늘 중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일꾼들, 그리고 '말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될 일꾼을 선출한다. 지난 3월 14일자 주간충현을 통해 이미 발표되었던 15명의 장로 후보자와 60명의 안수집사 후보자 중 각자가 기도로 정한 장로 10명과 안수집사 40명을 각각 직접 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후보자 본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중현의 성도들 모두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만큼 성도들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투표해야 할 것이다. 투표는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되며, 투표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후보자 명단이 다시 한번 본당 안내석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로 및 안수집사는 오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득표순에 따라 선출하며, 동수 득표자의 경우에는 연장자 및 고령순으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주일(3월 21일) 찬양예배 후 가진 당회에서는 80명의 권사 피택자들이 선출되었으며, 이 명단은 차후 금일 선출되는 장로, 안수집사 피택자 명단과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다.

금번에 피택되는 일꾼 전원은 다음 주일(4월 4일) 오후 6시 30분 베다니홀에서 김성관 위임목사의 권면을 들은 후, 4월 11일(주일)부터는 피택장로만과 안수집사후보만 및 찬사후보만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된다.

출발! 교구영성훈련 지난 28일 2교구를 시작으로

25일(목) 2교구를 시작으로 99년도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이 시작되었다. "자신을 알고 충성하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2교구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교구 영성훈련은 서광진 목사의 '성도의 신분'에 대한 특강과 김의철 장로의 '성경읽기' 특강, 그리고 임태주 전도사의 '교구행정 특강' 및 기도와 찬교 등으로 진행되었다. 교구위원회에서는 중현의 가족들이 교구영성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5대 목표가 교구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를 구제적으로 논의하고 성령의 은총 속에서 실천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일오후기도회 1주년 감사예배

주일오후기도회 개설 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4일(주일)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서 김성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호산나찬양대와 김승자 집사가 특별찬양을 한다.

4월의 주요 행사

- 2월 고난주간 음악예배
- 4월 부활절
- 4월 대가족 교육 시작
- 7월 성령의
- 25일 제2차 학습세례식

4월의 기도회 담당
이승학 목사(청년부 주지)

'99 여름 단기선교대원 모집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99년 도 여름 단기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젊음의 십일조를 바칠 헌신된 많은 일꾼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든 지원자는 소속 부서 및 교구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은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6번) 심진경

간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단기선교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준비되고 시작되어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파송지	기간	인원	사역	자격
케냐	15박16일	여자3명(여사, 간호사, 약사)	의료사역	1. 우리 교회 등록
		남자16명	학생수용 교사 중축	교인 중 선교소
수단	약 60일	2명(간호사, 약사)	의료사역	소망있는 자
		2명(기타 전문직)	교육시설 보완	2. 선교연구원 출
몽골	10박11일	12명	캠퍼스 및 지역전도	업생 및 재학생을
파키스탄	10박11일	12명	캠퍼스 및 지역전도	우선으로 선발



김창인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

(이사야 40:9-11)

“성도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호모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 전하여지는 모든 소식들은 거의가 죄악의 때가 묻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기쁨을 주는 소식도 있으나 근심과 걱정들을 일으키고 사람을 충동시켜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남을 이용하려는 간교한 선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1.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9절) 오직 하나님께서 진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소식만이 아름답고 권위가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죄와 상관이 없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은 지파가 풍성하여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권세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육신이 치료를 받고 마음에 위로를 받아서 아름다운 꽃과 마름주어 충실한 열매를 맺는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여 지지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법이 없고 죄악에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합니다.

2.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한 송이 꽃은 누구 아래서나 예쁜 모습을 보여서 향기를 내뿜듯이 신자는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신자들이 예 전도를 해야 하나?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으니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 전도자는 높은 산에 올라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9절) 왜 전도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였을까요? ‘산에 오르라’는 말씀은 대자연의 산에 오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정복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정복과 교만과 열기와 나태 등 자신부터 정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르지는 자가 무슨 전도를 하겠으며 세속에 굴하는 자가 무슨 전도를 하겠는가?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성경을 보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려면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기도인 산, 성경 공부의 산을 조금 올라가다가 “이만큼 올라 왔으면 됐다”고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성까지 올라 가야 합니다. 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도록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올라 가야 합니다. 기도를 조금 하고 다 되었다고 하거나 성경을 조금 연구하고 다 한 것처럼 생애를 단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자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를 위하여 뭇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비탈길을 써고 돌아 태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양떼를 사육하는 목마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쁘게 하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높은 산에 오르는 희생입니다. 전도자는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땅과 물과 피를 쏟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순교를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대자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들고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 가신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단에 올라갈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팔관할 때를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온다고 도망을 친다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대령 시절에만 예수님을 믿지 말고 한탄 날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순교의 산에 오를 수 있어야 참된 전도자입니다.

(2) 전도자는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

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9절)

이 말씀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시오” 하고 목이 터지도록 고향을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전도자는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정성을 쏟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 정성을 쏟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을 정성을 쏟아서 해야 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는 말씀은 자신에게 있는 정성을 전부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도 기술도 물질도 시간도 권세도 명예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쏟아놓아야 합니다.

(3) 전도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9절) 전도자는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두려움이 없어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육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아 제림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 주실 것을 깨달을 때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을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은도 성들은 떠도려는 먼지 같은도” (15절)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식이 세운 나라는 큰 못그릇 한 방울의 통과 불과하고 인간은 저울대 위의 보잘것없는 티끌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면 두려워하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사람들을 대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늙은이로 바로 왕 앞에 섰지만 사자가 떨려서 말 한마디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앞에 서기 때문에 담대한 사자가 떨려서 말 한마디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언제든지 나 혼자서 사람 앞에 선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 사자로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불려주시니 그를 불리어드릴 자가 없습니다.

4.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하나

“...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9절)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강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하신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10절) 그들이 보게 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안전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는 자는 갈빗대가 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강한 자로 임하시어 능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떼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1절) 목자가 없는 양은 비에 젖고 길을 잃고 헤매며 이리나 술남에게 물러가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며 살진 풀과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태어나 무리를 따라갈 수 없는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어 과하게 물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실관자로 임하시어 치활하시니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돌보시니 젖을 먹이는 이미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호모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욕심인 산, 교만인 산, 게으름의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높은 산을 넘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하며, 순교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희생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오르는 각오입니다. 그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공에도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보라고 하지 말고 감동하시며 사임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ㄴ



김성권 목사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마가복음 16: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으리라 하라 하는지라”

빈 무덤을 찾은 세 여인

마가복음 16장 초두에서 우리는 세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 세 여인은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시다(1절). 이 여인들이 새벽 어두움을 뚫고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 온전한 장례를 치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시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3절).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시다(4절). 그리고 그 돌라운 것은 이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 가려고 할 때에 무덤 오른쪽에 앉아있는 천사를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시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어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5절). 천사의 이 말은 무덤을 막았던 문이 옮겨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었습시다. 이것보다 더 크고 복된 소식은 없습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으리라 하라”(7절). 천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인들에게 명령했습시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한 이유를 주목해야겠습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한 천사는 왜 베드로의 이름을 따라 제자들과 구별하여 불렀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요 14:27)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흩어짐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도망쳤지만 언젠가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시다. 3년 동안이나 따라 다녔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14:30)고 말씀하셨습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시다.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

이러한 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시다(마 14:22-25). 그리고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시다. 이제 제자들은 필요한 모든 사실들을 들었습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제자들은 흠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시다. 예

습시다. 그리고 수년 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피곤한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던 그 온종일로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시다(눅 5:6).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동시에 분명히 깨달았습시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믿음의 회복이 필요했습시다.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자신은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믿었습시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후론에 부활하신 것이고 갈릴리 바닷가 흩어진 제자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시다. 이미 자신의 방심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았습시다. 이에 따라 그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시다(마 14:66-72). 아주 철저히 실패한 자가 되었습시다.

실패를 덮으시는 용서와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알려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에 따라 천사는 세 명의 여인들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달려갈 것을 명하고 있습시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과 예수님을 저주한 것까지 잊고 갱신되신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메시지를 당당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팔자들과 함께 불을 피웠지만, 예수님께서 불타는 거기 때에 먼 발치에서 따라 왔을 뿐이지만,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용서하셨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크리스 온종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에 대한 베드로의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전히 거들떠나 함을 깨닫게 되었습시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도 온전히 거들떠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내 따라갈 수가 없었습시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갱신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세 명의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 보라고 전해 주십시오.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라고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하여 완전히 실패하게 있던 베드로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시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가면서 열려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전동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허물했습니다. 세상은 주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간증해 주시고 어떻게 마음 속에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놀라운 복들을 주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누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B

예수님을 부인한 죄와 죄책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시다. 베드로는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 명의 여인에게 빨리 베드로에게 달려가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랑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시다.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빨리 알려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다시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오면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시다.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시다(요 21:6)!

거듭남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소합니다.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선교

단·가·선·교·1

‘복음의 기동타격대’

‘단기선교는 21세기 선교전략의 교두보’ OS ISLANDS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받는 장기적인 기도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

선교여행이나 복음의 기동타격대나

어떤 이들은 단기선교를 ‘선교여행’이라 부른다. 가볍게, 부담없이 선교지를 여행하듯 돌아보고 오는 것이 단기선교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들은 단기선교에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돈 낭비요 선교적 유희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선교관련자들은 단기선교를 ‘이 민족에게 주신 소망의 빛’, 혹은 ‘복음의 기동타격대’라고 부른다.

마지막 선교대상지역의 현실

최근 선교사들이며 선교학자, 그리고 선교관련자들이 21세기에 마지막 남은 선교대상지와 관련된 자주 사용하거나 듣는 말들 중에는 10과 40의 장문지역 이라든지, 선교 제한 지역, 혹은 창의적 접근지역, 미전도종족지역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절대 다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기기독교교가 불가능한 지역들이다. 장시간, 회교권, 불교·힌두교권이 대다수인 이 지역들은 외국인에 대한 선교를 극히 제한한 상황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역들 안에도 불가와 한 불비례종교(○) 혹은 합법적인 제국을 통한 비합법적 선교활동(○)으로 제약을 받아가면서 펼쳐질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의 수고와 땅과 헌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왜 단기선교이어야 하는가

21세기 21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남아 있는 선교대상지역들(이제 전통적인 선교방식 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쾌하고 기쁘게 움직일 복음의 전령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바로 생명력은 복음과 순전

한 헌신으로 준비된 단기선교사 및 단기선교팀들이다. 이 단기선교 사역팀이 잘 준비되지만 한다면, 장기기주 선교사의 사역을 더욱 효과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기주 선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결실도 맺을 수 있다.

단기선교 위한 장기적 준비 필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기선교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이 장기적인 준비를 통해서 선교팀 및 대원들의 사역성격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 어느 대상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교지 현장훈련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을 현지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언어, 문화,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영적 지도(Spiritual Mapping)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교팀을 위해 훈련을 위한 기도할 영적 중보기도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여서 잠만 다니는 식으로는 결코 험악한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의 진리를 뿌리기 위해서는 단기선교대원들이 일제감치 모인 원로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뿐 아니라, 기본인이 훈련을 받도록 기해야 한다. 잠만 다니는다는 느낌으로 언어훈련을 대충 하고 말면, 그야말로 단기선교는 선교여행의 수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계속·편집)

지금 선교지에서...

수리남에서 온 소식

인디언들은 신을 제대로 신지 않고 다니며, 아무 열매나 따먹고 위생관념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회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중약을 사용했지만 다 떨어지 버렸습니다. 충원교회 권병호 집사님의 도움으로 회중약 외에 많은 약들을 보내 주셔서 교회에 출석하는 어른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백전사촌을 방문했을 때 한 사람이 큰 입이 났다고 해서 들여보니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의 두 아이(1살, 3살)의 입에서 화창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집의 아들의 자녀들에게 남은 회중약을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마침 그 전주(2월 28일) 설교시간에 충 먹이 죽은 예후왕 이야기를 했었기에 입으로 나온 회중을 본 성도들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곳의 인디언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단에서 온 소식

카르툼대학 기독교사회는 학교 행정 당국의 허락을 받아 기독교 도서 시판매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 극렬주의 학생들이 석유를 뿌려 책들 다 태우고 이를 저지하는 학생들을 돌로 때리고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우리 대학생 그들 중 하나인 부부르스도 가발을 빼앗기고 머리를 벙글로 맞아 피가 나고 등을 칼로 찔러서 약 3주 동안 치료를 보았습니다.

수단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해 동안 충원교회에서 주간헌금, 헌혈의 만나 등 신앙 생활에 유익한 자료들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이런 자료들은 이곳에 계시는 한국분들과 함께 공부해 읽고 있습니다. 주간헌금 영문본은 2개월에게도 읽도록 하여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여기 약간의 헌금을 보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하시는 충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캔스텔에서 2봉헌 옮김

에배위원장과의 대담
온 성도가 준비된 예배 드리기만 고대

△ 지난 3월 20일(토) 에배위원장 오정현 장로와의 대담.

“아버지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우리 교회 5대 목회 중 제1의 목회자 신령한 예배인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나?

오정현 장로: 사실 5대 목회자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가장 최대의 봉사라는 면에서 첫째 순서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교회의 목표로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나요?
오정현 장로: 교회가 나름대로 목표들이 있었지만, 신령한 예배를 목표로 한 교회는 의외로 참 드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원로목사님께서 예배의 가족성을 대외한 장조해 오셨고, 또한 김성환 목사님도 같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에배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정현 장로: 일단은 예배 지각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5분, 10분 지각생도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헌금순서가 끝난 후에 오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인근들이 회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배지각현상이 에배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 교구와 부서들에서 자발적인 힘이 있지 않는 한 캠페인만 가지고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에배위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들 나중으로 오는 사람들 생각해서 외자 중간에 앉도록 적극 권하고 있고, 모자르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권하고 있고기도 합니다.

그 밖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오정현 장로: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간총회와 주보에 정리된 목사님 설교를 미리 읽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 장년부 등에서 바쁜 예배 드리기를 위한 제미나리 행사를 자제적으로 실시해서 온 교회에 신령한 예배를 위한 자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삶에 관하여

홍인 실(청년부)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 다. 말하자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부모님 모두가 모태신앙인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가정인 셈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상에서 교회에 처음 갔던 것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5 살 때 나갔던 초동부 교회학교였다(아마 그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나갔을 것이다).

그 때 그렇게 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변화나 예수 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나이였다고 기억된다. 그런 교회학교의 유지 부, 초동부 시설을 지나 중고등부 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주님을 만났다. 아무런 소리 도 없이 조용히 ...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나 를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게 했다. 그전까지는 그저 지식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나 의 삶에 있어서 나를 이끄는 힘이 되었고, 나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마음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도 너무나 잘 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며, 내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작년 6월에 나는 이미 충현교회에 나가고 있는 동생을 따라 충현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 에 소속되어 낙도성교도 다니왔고, 성경공부도 하고, 여러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이야기 를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안에서 나는 그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책역이 되며,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나에게 다시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무지하여 많은 잘못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든든한 나의 버팀 목이 되어 주는 가족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도 뜻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잃어버린 지갑

김정 민(청년부)

지하철에서 언니 가방을 놓고 내렸다. 그 속에 든 내 물건 이라곤 손대 물은 지갑뿐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지갑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다. 어디선가 선물로 들어온 남작용 장지갑 이 끌려 다니길래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어언 5-6년 된 것 같다. 지갑을 들고 다닐 때는 별로 그 속에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돈을 받아들이고 내어 주고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런데 없었지 않나 그 속에 묻혀 있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생생하 게 살아 움직인다.

LOVE라는 글씨를 종이에 써서 오린 다음 코팅을 해서 무 안한듯 수줍게 내어밀던 17세 소년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그때가 아마 10년 전이었지? 나보다 3살이 어린 사춘기 소 년한테서 받은 그 불품였던 코팅된 글씨를 나는 10년이 되도 록 지갑 속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나도 다음에 결혼할 때 아바처럼 잘 생기고 멋진 남작한테 시집가지! 하며 다 짐하게 했던 아버지의 군인시절 증명사진도 낡은 채로 묵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 시간나면 꼭 한번 봐야 했던 연극티켓, 그리고 예전 조원들의 작은 수속록.

지갑 속 작은 세상이지만 내 삶이 그 속에서 평결고 있었 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나. 언제나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 함이 덜했던 것들을 떠올린다.

내 목숨이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처럼 행동한다.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하나 님도 그렇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필요할 때만 찾았던 것 같 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 했다면 그분 다행이지만.

내 목숨은 유한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인식한다. 내 삶의 작은 변화와 함께.

저는 바보가 되었어요

정형 경(청년부)

주님을 믿고 나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만약 누가 내게 물어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 스스로가 가장 놀라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 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 같다' 라고 놀림 섞인 말을 하는 걸 종종 듣곤 한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 혼자 생각해 보기 도 하지만 우순은 일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기분이 좋으니 나는 정말 바보가 된 게 아 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스로를 꽤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겼었고 그 사실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꽤나 애썼었 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의 그런 발버둥이 무의미 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비로소 바로 볼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 자신에 대해 그동안 쌓아왔던 마법같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추구하며 살 았던 삶이 주님께로 옮겨 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모두 주님께로 옮겨졌 수가 있었다. 컴퓨터 용어에 '포맷'이라는 단어가 있 다. 이런 것을 깨끗이 지워 버려야 새로운 것을 덮일릴 수가 있다는 뜻이다. 내가 버린 만큼 주님께로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주님은 가장 약했지만 가장 강하셨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 같은 역설이다. 아니 부드러운 것 같은 모 습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살 수 있다.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음이 또한 나를 너무나도 기쁘고 든 든하게 해준다.

배우는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고된만큼은 천체보다는 행복한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다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백기 경(청년2부)

"살람" 저의 둘째 손가락이 여러분께 다가가입니다. 주일 청년2부에 오시면 항상 만날 수 있지요. 또한 이렇게 지면으로 만나게 되니 저의 둘째 손가락은 바빠집 니다. 첫째인 엄지와 다른 손가락도 도와 주네요. 정말 기쁜 만남입니다. 먼저 청년2부 5조와 둘로스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의 작은 고백을 전할까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니다. "10년 후에 무엇이 되고 싶니?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봤니? 한 번 그려보면." 그때 저는 3년 전에 커다란 꿈을 그렸어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꿈이지요. 마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렸어요. 10년 후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짓고, 그 옆에는 어린이 선교 유치원과 선교 스포츠 센터를 짓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20년 후에는 내 남편을 충현교회의 인자로 장로님으로, 나는 기 도하는 권사님, 내 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선교에 힘쓰고 싶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40년 후에는 우리 부부가 두 손 꼭 잡고 새벽기도를 하리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그런 꿈을 그리고는 그냥 미소만 펴고 물어 두었어요.

그런데 작년 CBS 사간에도 한번 그런 질문에 답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도 그랬던 그 성전을 그날도 또 그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태만 있던 성전이 그날 은 아름다운 배경까지 있고, 그림이 제논에 사진처럼 보였어요. 저 또한 놀랐어요. "주님 이것을 제가 가져도 될까요? 두 눈에 뜨기유이 느껴졌어요.

올해 저에게도 땅이 생겼어요. 조상의 묘로만 사용하던 산인데,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었고 그곳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교사 기도 모임때 또 한번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 수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꿈이 올해는 땅이 생긴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또 한번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성전과 어린이 선교 유치원과 선교 스포츠 센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또한 젊은 청년 들이 보였어요.

"주님 이것을 가져도 될까요?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가 그린 커다란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때는 줄로 하나되는 기도의 불길

주일 오후 기도회 1주년 전 교인이 참여하는 기도회로 자리 잡아



실업인전도회에서 시작한 주일오후기도회가 오는 4월 4일로 1주년을 맞는다. IMF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달랠 위로할 길 없어 "기도만이 살 길"이라며 시작한 기도회가 군·교정·경찰전도회 회원이 동참했고 이제 전 교인이 참여하는 기도회로 부흥하고 있다. 이에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주일오후기도회 1주년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토론자/김준권 장로, 이홍성 목사,
김재철 목사, 조철수 목사,
구명신 전도사
사 회/박승길 실업인전도회 총무
기 록/이희석 실업인전도회 홍보부장

사회 오는 4월 4일로 주일오후기도회가 시작된 지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김준권 장로님의 감회가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을 간략하게 회고해 주시지요.

김준권 장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고생하신 교역자님 및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IMF가 터지면서 실업인전도회 회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무엇으로도 달리 위로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달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 이홍성 목사님과 의논하고 임원들과 의논한 결과 매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임원들이 참석하여 기도회를 갖고 회원들은 주일 오후 사무실에서 모여 기도하고자 의견을 모아 처음 7-8명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회가 실업인전도회 사무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군전도회, 교정전도회와 함께 사무부실에서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고 중간에 경찰전도회에서도 합류하게 되고 보니 사무부실이 넘칠 수밖에 없었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9월에는 갈라디아서로 옮겨 기도 모임을 하게 해 주셨고 너무 넓은 장소에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것만 하다는 우리 속에 기도하며 시작했지요. 지금도 보니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요. 각종 전도회원들을 넣어 이제 전 교인들의 주일오후기도회로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사회 이제, 목사님들께서 주일오후기도회에서 1년 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신 것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성 목사 우선 실업인전도회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후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김준권 장로님과 같이 협력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 영적으로도 당장씩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후원교회도 새롭게 영적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역자로서 실업인전도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로부터 찾았습니다. 또한 주일오후기도회에 많은 믿음의 행해들이 모이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업인전도회원들의 믿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목사 작년 4월 이홍성 목사님이 실업인전도회에서 IMF를 맞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군, 교정전도회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처음엔 한뼘밖에 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4, 5, 6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6월이 지나고 나니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기도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김준권 장로님께서 이미 주일오후기도회는 어느 정도 기조가 잡혀졌으니 앞으로는 주 강사님을 모시고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임원들의 결정이라면서 제가 많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년 1년을

함께 기도하고 일하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 일단 제 자신이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중원교회에 예전부터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증거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도의 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찬양팀을 개발하고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조철수 목사 작년 기도회 출발할 때 저는 경찰전도회 지도부사였습니다. 경찰전도회를 안기워 주어 서운했어(일동 웃음). 앞에서 이홍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이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기도회가 필요한 때였다가 생각합니다. 주일오후기도회를 위해 말씀 증거할 때 모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는 듯한 심령들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회 김재철 목사님께서 찬양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김재철 목사 처음 기도회 시작할 때 김준권 장로님

이 이끄실 때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찬양팀이 찬송드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은혜가 더욱 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회 구명신 전도사님의 회고담을 듣고 싶습니다.

구명신 전도사 처음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나 사무부실에서 갈라디아서로 옮기는 것이 솔직히 걱정이었습니다. 사무부실이 차고 넘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반대했지만 믿음이 적은 탓이었고 지금과 보니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저는 갈라디아서에 넘어 올린 후 본 자리가 많으면 옮기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았는가 했으나 이제는 7백명은 곧 채워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철수 목사 기도회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모두들 예측불허한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귀중한 기도회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각성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오랜시간 감사했습니다. 주일오후기도회가 전 교인의 기도회로, 물론 중원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자리잡히셔서 이 기도회가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인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제자장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난주간에 생각할 것!

"144장에서 496장으로"

**'감상적인 고통느끼기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영광 바라보아야'**

고난주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은 숙연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수진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이고, 그 고귀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날들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스스로 죄의 의식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미리 제를 뿌린 자처럼 아픔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다사 생략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느낌과 비교하여 자주 신화적인 감상주의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공로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적 고난주간 보내기는 인위적인 슬픈 의식을 치러낸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돌아가곤 한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항상 144장 찬송을 부르게 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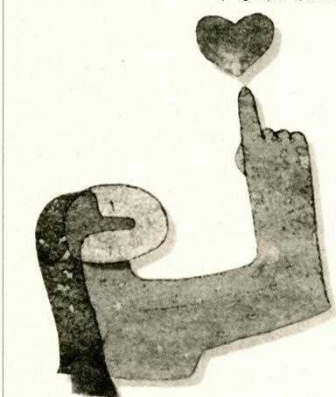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찬송이다.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찬송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간적인 슬픔에 잠겨만 후에는 그냥 지나가는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일이 많다.

사실, 이 찬송의 원작자인 크로스비가 처음에 작사를 했을 때에는 이 가사가 아니었다. 144장 찬송은 크로스비가 1869년에 작한 가사를 1989년에 누군가가 고쳐 쓴 것이다. 본래 가사는 우리 찬송 496장에 실린 '십자가로 가가아'이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슬픔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담고 있다. '십자가로 가가아'를 이끄는 것이 흘린 보혈로 정결하소서 십자가를 위하여 영영한 요단강을 건너 후 무한 영광일세' 우리 고난주간 보내기가 감상적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구속을 바라보는 영광의 지평까지 이어질 수 있기 위해 잘 준비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겠다.

탐방

-만사랑 마음을 다와서-
주님! 여기에

우 영 회(회장, 17교구)



여기 작은 천국이 있다. 비록 세상과는 동지고 분품 없던 형상을 가진 작은이들이 거처하는 한살마를, 중원전지관원서 자동차로 7분쯤 가다보면 신 길에 조용하고 깨끗한 빨간 벽돌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260명 아이들이 사는 곳 답지 않게 너무 조용한 이유는 신세 장애와 동시에 언어장애 때문이었다. 교구 교역자님과 40여명의 여건도 회원들이 도차하여 기도하고 식사거들기, 목욕시키기, 기저귀끼기, 예뻐드리기 등을 하면서 목이 메어오는 아픔을 느꼈다.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생활에 젖어 살아온 내 모습.

그들은 비록 뒤떨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천국을 이루며 사는 공동체였다. 온몸이 막대기처럼 뻗뻗하게 모여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 중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기에 혀로 책장을 넘겨 책을 성경을 두번 통독했다는 아이의 꿈은 믿지 않은 선생님 두명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란다. 또 다른 아이는 자신도 간신히 손가락질 하면서 친구 한 번 자기 한 번 번갈아 가며 식사하였고, 열드린채 친구의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도 있었다. 그들은 그 형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봉사하고 살아간다. 예뻐 시간에는 아이들을 안거나 무릎에 누운 채 찬송을 불렀다. "예수 사랑 하심은 기록하신 말대로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들은 마주보며 그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보았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음을 확신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부끄러워 기도하였다.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소고자 눈물 절도로 열심있었고, 하루 3명을 꼭 육시키고 환히 웃는 얼굴에 곡슬 같은 땀을 쉽게 닦으려 하지 않는 집사님, 아이들과 벌레 장이 들어 떨어지거나 쉬워 하시는 이 권사님. 다음 봉사때도 꼭 마르다 방을 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다. 준비해간 식사를 하면서 "목이 괜히 많이 안 넘어간다"는 집 권사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심정을 얘기 하신 듯 하다.

3시쯤 봉사가 끝나고 원장님과 직원들의 인사를 뒤로 하고 비서에게 몸을 실었다. 속으로 기도해 본다. "주님 저희 천도 회원들에게도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이들을 돌보고 씻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맘껏 봉사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나의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의 물결이 일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사랑의 실천 통해
주님 주시는
평화 얻어

지체들 소식

영아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란 제목으로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가서 2장 5절 말씀을 주시며 일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나무여,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말라죽고 마는 무화과나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열매 없는 나무를 주셨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받은 만큼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시간과 생명을 허무한대 소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해 버리신단다. 이날 전도사님은 우리 영아부 모두에게 하나님어디면 달란트를 주셨는지 깊이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주기도문 외우기

유아부는 오늘(3월 28일) '주기도문 외우기'를 합니다. 어느 반이 제일 잘했는지가 결과만 따지지 않고 한 달 이상을 집에서 애쓰며 외운 어린이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 주기도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그마한 행상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깨끗한 심령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그릴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두 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임미수 통신원)

영년부

몇 점이에요?

지난주 실시한 학부모 초청과담회가 은혜가운데 마쳐졌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

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토의한 유익한 시간이였다. 한편 이번주 유년부 어린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배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를 측정해보기 위한 학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정수로 어린이를 평가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린이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데도 정수에 민감한 친구들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궁금해한다. "몇 점이에요?"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심방을 통한 교제

초등부에서는 지금 성경 심방과 교사 심방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반별 친교도 하고 있습니다. 반별 친교는 각 반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인데 올해는 반별 친교보다 개별 친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과별로 모여 떡볶이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서로 친구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올 1월 동안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외 생활에 도움이 될 심방과 친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애매시각 때문에 10시 30분 어린이 예배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9시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부에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려고 하고 있으니 초등 4학년과 4학년 자녀가 있으면서 예배시간이 맞지 않거나 걱정하셨던 학부모께서는 초등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수 통신원)

소년부

새 친구를 주님의 품으로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새 친구 초청찬치를 가질 계획이다. 먼저 기

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잔치일까지 두 차례의 교사 특별기도회, 매주일 교사 기도회시 기도, 매일 저녁 9시 교사 합심기도, 각반 담임선생님의 대신자를 위한 기도나 진행 중에 있으며 프랑가드, 포스터 부착은 물론 학부모님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는 안내문 발송, 우리 교회 미동족 자녀 150여명에 대한 초청잔치 안내 및 진화 심방 등으로 분주하다. 또한 교회 인근의 도로, 하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도하는 학원전도도 진행되고 있으며 소년부의 모든 교사와 친구들이 1명 이상의 대신자를 확정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등2부

신선한 충격과 도전 전 연구수업

오늘은 교사실에서 신승민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믿음 3반의 연구수업이 있었다. 이 수업은 종전의 교사위주의 주입식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리더하는 획기적인 토론식 전개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새로운 수업의 모형을 보신 선생님들은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중등2부 교사실을 405호에서 505호로 옮겼다. 이사를 하는 동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은 하나가 되어 구슬땀을 흘렸다. 열심히 집기를 나르고 분칠하고 정리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손준희 통신원)

3교구

충성된 마음으로 신령한 찬양을...

3월 19일 금요일시 모든 지역교회들(1-8지역)이 모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렸다. 찬송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이케한 집사님의 지휘에 맞춰 정성어린 아름다운 찬양을 하 나님께 올렸다. 어린 심령들의 솟소리가 떠나자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었다. 두달정도를 연습하면서 우리 교

구가 한해동안 맡은 모든 일들을 충성 하겠다는 다짐을 다짐할 수 있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3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백미경 통신원)

12교구

모이기에 힘쓰는 3월 한달

3월은 모이기에 힘쓰는 달로 지기자는 교구 목표 아래 모든 공예에 및 기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교신주간을 맞아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통해 힘써 모이게 하고 새로이회를 위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교구 목사님께서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가정예배시 예수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발치위를 조족 조족 적어 프린트해 주셨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바라보며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끄러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본다. (이규숙 통신원)

14교구

중보기도로 이웃사랑을

교구 소식지에 항상 여러 명의 한 자들의 소식이 실려 있다. 또한 장례를 당한 가정의 소식, 교구 목사님의 동정들도 실려 있다. 지난 주에는 교구 목사님께서 군복무자들을 위한 강사와는산후론전 세례식 제례, 대림절 등 1인 3-4역을 감당하시어 하는 것 등이 실려 있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드리며 많은 교도들이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교우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교구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며 보냈으면 한다. (이애나 통신원)

교회소식 / 목·장 칼럼

●알림

1. 구제헌금 / 오는 1, II, III, IV, V 부에배에서 드립니다.
2. 부활절 감사헌금 안내 / 4월 4일(다음주일) 1, II, III, IV, V 부에배에서 드립니다. 기도와 경건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이동전도회 차분교육원자 접수 / 4월 4일(다음주일)까지 김순실 집사(554-0540)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4월 셋째주부터 3개월 과정(매주 월, 화, 수 교육 실시) · 교육장소: 이이동전도회실 · 교육대상: 무디아전도회원 중
4. 만도린전도회 대일 모임 / 기와 연주 가능한 성도들과 기초반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이연은 집사(3463-0434)

●모임

1. 장로 회오세백기도회 / 30일(목)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오세백기도회 / 29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는 15:00, 갈리리움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신교관 301호
5. 삼일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4월 1일(목) 새벽기도회 후, 삼일인전도회실
6. 권사회 제4회 월례회 / 31일(수) 1부예배 후, 사당방식

●남녀전도회

1. 바. 뽕 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 요 한 4 / 오는 15:00, 동송식 집사실

●결혼

1. 김민태 군(김두만 성도, 유종자 집사의 아들, 11교구)과 이희진 양(이진현 씨, 이필숙 씨의 딸, 19교구) / 4월 3일(토) 13:00 갈리리움

●별세

1. 최경업 성도(교회와 집사 모친, 장현규 성도 장모, 2교구 해정2구역) / 6월 1일 별세, 8일 장례
2. 김성태 성도(의대본 집사 사부, 2교구 신동1구역) / 6월 1일 별세, 8일 장례
3. 김일선 성도(상부자 권사 모친, 주영민 집사 장모, 2교구 해정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4. 김귀복 성도(김재배 집사 부친, 강석준 집사 장남, 14교구 오류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5. 허상찬 성도(허만선 집사 부친, 구명복 집사 사부, 3교구 개나리구역) / 24일 별세, 27일 장례

●주수 변경

1. 전홍열 집사, 박윤식 권사, 전성록 집사, 류은경 집사 / 2292-5778

●4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장모)					찬양대(한주실)	수요일예배(권사)	
		I	II	III	IV	V		I	II
4	4	전홍열	최영환	이병욱	이인상	김장남	이홍철	오화자	김영아
	11	이정주	전홍숙	이종길	이갑재	장교리	배준식	송영민	김용환
	18	정영일	김순연	한송규	이종길	김성현	박병태	이종효	박진필
	25	김환기	김영수	우기전	임기재	최성현	전학래	이규숙	김은희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43	문경자	1	무디아		455	조남수	11	무디아		467	박지원	19	대학부	
444	배재우	1	청년2부		456	이문환	11	청년2부	송선홍(11)	468	조성희	19	대학부	
445	이혜원	1	청년2부		457	박영진	13	베드로	장정규(13)	469	정소라	19	대학부	
446	김문영	2	바울	황학규(2)	458	전영미	19	청년1부	유영희(9)	470	황세인	19	대학부	
447	박규남	3	베드로		459	김민진	19	청년1부	김주영(2)	471	유시연	19	대학부	
448	하성식	3	청년2부		460	이신영	19	대학부	문신영(1)	472	조미란	19	대학부	
449	전소운	2	청년1부		461	황세인	19	대학부		473	이성복	19	청년1부	전계술(15)
450	김유중	5	한나	홍명순(5)	462	전경호	19	청년2부	조현숙(17)	474	한동수	8	베드로	
451	김미자	6	청년2부	전진규(7)	463	최유진	19	대학부		475	한창호	8	한	
452	오종호	8	청년2부	박준근(8)	464	윤장영	19	대학부		476	박미정	8	마리아	
453	문희열	10	베드로		465	신정	19	대학부						
454	김지희	11	청년2부	심해숙(2)	466	박찬숙	19	대학부						

※천주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칼럼

한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차신 득(장로, 감사위원장)

얼마 전 아들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건강한 한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다녀오는 곳이지만 본인으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도 한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아무래도 좀 가라앉아 있었고 아이에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생각하는 중에 장송가 429장과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꼭 30년 전 아버지인 제과 군대에 입대하면서 불렀던 찬송과 부학했던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아들에게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훈련과 공생함을 감당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젊은 열마지기 자신이 있었으나 마음 속에 격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성과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나 한편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배워가게 되고 나쁜다는 아이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강연도 최첨단 대성당이 배치되어 생활하다 보니 열려있는 기도제목들은 고사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대원들을 인솔하여 산에 올라가 진지작업을 시키고 감독이나 해야 할 일상이었습니다. 미처 상상을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산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느라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남달라게 신경을 썼는데 적었던 순간이 저당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주셔서 주일성수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학했던 기도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아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었습니다. 입대하는 아들에게도 나의 이러한 간증을 들려 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지키며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결을 걷기를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들이 신앙의 신조의 뜻을 이어 피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월 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바리새 김대수
(임마누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거기 너 있었는가
· 예수 나를 위하여
· 예수 이름으로

◆ 3부예배

소프라노 오경선
(함평루터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생명의 양식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사랑하는 자들아
· 거룩한 성

◆ 4부예배

소프라노 김승자
(아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 주 앞에
· 다시 사신 구주

◆ 5부예배

소프라노 윤지영, 조수진, 최근희, 손신애
(멜로디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예수 부활했으니
· 살아계신 주
· 주님께 영광
· 우리 늘 예수

충천 중보의 창

① 김장원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원 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게 하소서.

② 오는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장로, 안수집사로 선출되도록 인도하소서.

③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은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④ 현재 진행 중인 99년도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을 통해 교구식구들이 복을 안에서 하나되며 진정한 헌신과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소서.

⑥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원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필수 전홍철 김재철 이송수 정강진

정현민 조문환 조희수 김동하 차명준

김병태 김진식 권원현 서광진 이순학

장정석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신교사

이준근 안석필 김영대

■ 감도사

박기인 염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만 최순복

■ 여전도사

장원희 현정남 장영자 임대주 김정자

배옥인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환 현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김진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장준 조재민

하용구 김병수 이종대 김옥식 김일승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영 이석현

■ 원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섭 강기영